



코로나19 확진자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하는 인터넷 방역단

고양 청년인턴 200 참여자 김경민·박민지 씨

고양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 및 인권 보호와 경제적 피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코로나19 고양시 인터넷 방역단'은 '고양 청년인턴200'사업을 통해 선발된 고양시 청년인턴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확진자 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는 활동을 하며, 지역 확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 박다연 사진 김오늘

(좌측부터) 김경민·박민지 씨

Q — 고양시 청년인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고양 청년인턴 200' 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민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다 고양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평소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덕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민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이 됐잖아요. 저 역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터라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Q — '코로나19 고양시 인터넷 방역단'은 정확히 어떠한 일을 수행하나요?

김경민 초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들의 동선 정보를 공유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사태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확진자의 일상 복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확진자의 동선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함께 담겨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확진자 정보를 찾아내 삭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박민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에는 공개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와 관련된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Q —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의 게시물이 삭제되나요?

박민지 저희가 7월 1일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첫 주에는 그간 누적된 정보들이 많아 하루에 70개 정도를 처리했고, 지난달에는 약 300건의 게시물을 삭제 처리했어요. 검색을 통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게시자에게 쪽지나 댓글을 통해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이 과정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까지 소요되거든요. 글이 정말로 삭제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고요.



Q —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업무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김경민 고양시의 확진자 정보가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 가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땐 정말 난감하죠. 또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확진자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지침을 설명하고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면 상처를 받기도 해요.

Q — 반대로 뿌듯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박민지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됐다', '고맙다', '고생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업무인지만 다양한 사람을 대하며 지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을 때면 '아, 그래도 보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민 저희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데 적게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 '인터넷 방역단' 활동이 생소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박민지 고양시청 홈페이지의 '고양시 확진자 동선 삭제 시민제보란'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나, 아직 신청이 저조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제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경민 확진자들의 일상 복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다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